

쏟아 앞둔 민주당 광주·전남 무기력

勢 부족에 친화력 취약, 당 대표·원내대표 도전 포기

“리더십보다는 무난한 정치...” 지역 목소리 대변 약화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지역민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7·6 통합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하는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7·6 통합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당초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이 당 대표 경선 참여를 검토했으나 최근 불출마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원내대표 경선 주자군에도 광주·전남지역 18대 국회 당선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낙연 의원이 한때 원내대표 경선 참여를 시사했으나 최근 18대 국회 하반기 도전으로 선회했다.

광주·전남지역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빈약한 정치력에 있다는 분석이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에는 전체적인 세가 부족하고 원내대표에 도전하기에는 동료의원들과의 정치적 친화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전과 투쟁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 확보보다는 상처받지 않고 무난하게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 1명을 선출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보다는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발걸음 돌리고 있다.

당장 김효석 의원과 최인기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며 박주선 당선자도 대의원 구성 등이 마무리된 이후 최고위원 경선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 사람이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다면 광주·전남지역 대의원과 구 민주당 출신 대의원 표가 분산된다는 점에서 물밑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광주·전남 정치권이 별다른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정치적 구심점이 실종되면서 모래알 결속력을 보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5선의 박상천, 김영진 당선자는 국회 부의장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3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등에 눈길을 돌리는 등 중진급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과 당선자들은 2년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18대 국회에 진출한 당선자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보다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은 보다 많은 소통의 노력과 정치적 비전 제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정부 학교 자율화’ 교육 공청회
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학교자율화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 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굿바이 여의도” 민주 낙선자 ‘막판 투혼’

장영달·정청래·이목희 의원 등 대정부 질문 쇠고기 문제 등 현안 관련 이명박 정부 맹공

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 낙선의 원인이 임기를 불과 20여일 남겨 놓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집의자 7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은 모두 낙선자로, 이들은 최대 국민적 관심사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각료들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등 막판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

당사자는 4선의 중진인 장영달, ‘386’으로 문화관광위에서 활약한 정청래,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노동전문가 이목희 의원.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장영달 의원은 “16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여기에 섰다”며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를 떠나

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의도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내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차마 발길이 안떨어진다”며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을 불러내 쇠고기 협상과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굴욕적 협상이자 불평등 조약으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발언은 여론화도용”이라며 “정부 고시 전에 재협상에 나서 검역권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통상 마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목희 의원은 “쇠고기 재협상은 아직도 불가한가”라는 질문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하자 “위생조건 해석과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정문 25조도 모르느냐”고 호통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정권 출범 2개월만에 총체적 난맥이다”라며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쇄신하고 대통령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한 총리와 고성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 의원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는 물음에 한 총리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광우병 문제라면 오늘 아침에 설명을 잘 드렸다”고 버티자 재차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한 총리는 “오늘 두 번에 걸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한 “FTA 비준안 처리 4인회담 갖자”

민주 “쇠고기 재협상부터 해야” 거부

한나라당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양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인 회담을 개최할 것을 통합민주당에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인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저, 양 당 정책위의장 등이 4인 회담을 빨리 열어 5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을 국민 앞에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은혜 원내 부대변인은 이와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정국’을 몰타기 하기 위한 정치공세” 라면서 “국익의 최우선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먼저 할 일은 쇠고기 협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일”이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경선 다자구도로 가나

원혜영·이강래·김부겸 3파전에 흥재형 가세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구도가 복잡한 흐름을 맞고 있다.

3파전 양상으로 압축되는 듯 했으나 의외의 카드가 부상하고 내부 교통정리가 더뎠다면서 ‘다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만 7~8명. 원혜영(3선·부천 오정), 이강래(3선·전북 남원 순창), 김부겸(3선·경기 군포) 의원 외에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내보인 인물들이 4~5명에 달한다.

충북의 흥재형(3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7일 충청권을 대표해 원내사령탑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정책위의장 출신의 강봉균(3선·전북 군산)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석현(4선·경기 안양동안갑) 의원도 출마의지가 매우 강하고, 최고위원을 지낸 이미경(4선·서울 은평갑) 의원은 출마의사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군이 교통정리되지 않는 데는 7월 전당대회의 지도부 선출방식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분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진 그룹 내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으면서 실속이 있는 원내대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분

위이다. 후보구도가 복잡해지면서 경선의 향배도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수도권-호남권의 대결이 펼쳐져 온 지역구도가 수도권-호남권-충청권의 3각 대결구도로 바뀌고 같은 권역에서 복수 후보가 출전하면서 ‘각개약진’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당 대표 후보군과의 ‘짜집기’ 구도도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주변에서는 ‘정세균 대표-원혜영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이강래 원내대표’식의 구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지만 후보군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합이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 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경선은 ‘구도’보다는 개인 경쟁력과 ‘발품’이 승부의 결정적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해온 박주선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적극 검토중이며 박병석 의원은 정책위의장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직 도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해온 김효석 원내대표는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강기갑 의원·문국현 대표

“표적 수사 중단하라”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8일 강기갑 의원과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훈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의측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성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분명한 증거나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데 시도된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라며 “과잉수사 강행은 쇠고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강 의원에 대한 아비하고 어설픈 정치보복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야당쫓이기 시나리오가 정부여당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며 “한반도 대운하를 격침시킨 문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는 검찰이 정부여당의 의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공천헌금수수 혐의를 흘려 엄청난 부패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데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정치자금 납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면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의 정치자금 납부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각 정당 국고보조금을 현행 50%로 낮추되 국고보조금 전부를 정책개발에만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0주년을 축하합니다.

SDM

대표이사: 조필연

사무처: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0-1

전화: 010-9900-0000

대표: 이창훈

전화: 010-9900-1000

TEL: 010-9900-1000